低開發國에 있어서 經濟構造改善의 基本戰略

實務經營學科
專講 柳 時 洛
RYU SI MYUNG

目 次

Ⅰ. 序 言
Ⅱ. 經濟開發의 基本戰略
1. 過剩人口 및 雇傭
2. 現實投資의 決定
3. 資本蓄積
가. 內部的 源泉
나. 外部的 源泉
4. 技術進步
Ⅲ. 投資의 配分政策
1. 投資優先順位의 策定
2. 農業開發의 必要性
Ⅳ. 結 言

Ⅰ. 序 言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의 問題는 J.M. Keynes의 「一般理論」이 刊行된 以後부터라 할수있다. keynes의 理論을 長期動態化 하려는 學者들의 努力의 必然的 歸結點은 經濟論理의 展開過程에서 資本蓄積과 經濟成長理論을 中心課題로 삼지않을 수 없었다. 이 課題의 一環으로서 經濟的後進性 또는 低開發의 問題가 明瞭하게 浮刻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純粹理論의 對象으로서 硏究되어오던 經濟開發의 問題는 第二次 大戰後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狀態에서 解放을 맞은 後進諸國의 自國의 經濟的 自立과 政治的 獨立을 위하여서는 一次的으로 經濟開發을 成就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한편으로 先進諸國은 戰後過剩生産과 過剩資本蓄積이 빚은 經濟的 深海狀態로 부터의 脫皮를 위하여 後進國의 經濟開發 問題를 重視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卽, 後進國의 開發問題를 先進國 自身들의 活路를 위하여 하나의 共通課題로서 提起되기에 이르렀고 또한 戰後 世界經濟 發展에 있어서 새로운 중요한 課題로서 대두하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戰後, UN을 비롯하여 先進諸國들의 低開發國에 對한 經濟援助와 더부러 低開發國은 自身들의 經濟開發을 위하여 國民的 總力을 기우리고 있음은 戰後 世界經濟發展의 새로운 局面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低開發國은 歷史的으로 先進資本主義 諸國의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로서 長期間 從屬되어 그의 獨自的인 發展이 沮止되었기 때문에 民族資本形成이 극히 微弱하고 前近代的 産業構造를 지니고 있으며 낮은 所得水準과 工業의 後進性 그리고 資本設備의 相對的 低位性등 構造的後進性을 脫皮하고 局面飛躍을 이룬다는 것은 至難한 實情인 것같다.

이와같이 低開發國의 經濟開發過程이 매우 緩慢하고 부진한 理由가 長期間 隷屬된 歷史와 發濟本質의 慢性的痼疾性과 脆弱性 그리고 非經濟的 諸要因등에 基因한다는것은 모든 後進經濟理論家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바다.

事實上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이란 世界的 歷史的 要請임에도 不拘하고 人口는 暴發的으로 增加하고 있음에 反하여 開發起點에 있어서의 起動力이 無力하여 構造的 停滯狀態를 脫皮못하고 있거나 매우 緩慢한 變化만을 나타내고 있는 實情임으로 經濟計劃은 開發에 따른 重要한 手段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勿論 計劃의 內容과 範圍는 各國이 處해있는 特有한 政治社會 및 經濟的條件에 따라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計劃의 目的과 그 執行手段도 이들 諸條件에 크게 規制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計劃作成의 方法은 計劃의 目的과 社會經濟條件에 따라 各樣各色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大部分의 低開發國에 주어진 政策手段은 大體로 自由 및 個別的 混合經濟類型에 屬한다. 低開發國의 境遇에 있어서는 經濟開發의 要請에 따라 目的은 現存經濟社會構造를 改革하거나 새로운것에 對하여 適應하는 것이기 때문에 資本蓄積을 現實化할 수 있는 所得과 生産의 急速한 增加가 要請되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急速한 工業化, 農業의 開發 및 社會間接資本의 促成等이 具體的인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配慮해야할 點은 所得配分, 均衡된 地域開發, 雇傭機會의 擴大및 經濟安定等을 看過해서는 안된다는 事實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低開發國의 開發起點에 있어서의 人口增加, 資本蓄積, 所要投資率 및 經濟成長과의 關係에 對한 模型을 論究하고 나아가 開發計劃에 있어서 投資의 Priority를 決定하는 基準에 對하여 論究해 보기로 한다.

Ⅱ. 經濟開發의 基本戰略

1. 過剩人口 및 雇傭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의 最終的目標는 經濟成長과 關聯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經濟開發의 基本的要因으로서 人口變動 資本蓄積 技術進步等 셋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經濟成長이란 一般的으로 一國에 있어서 繼續的인 人口增加를 隨伴하는 가운데서도 總體的인 또는 1人當産出高의 持續的인 增大라고 할 수 있다. 人口의 增加는 한便으로는 새로운 需要를 增大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勞動供給量을 增加시켜 生産量의 增大를 가져온다.

이제 勞動供給量을 L 實質國民所得을 Q 勞動者1人當生産力(Q/L)을 r이라고 하면 $Q=$

$L.r$ 혹은 $\triangle Q=\triangle L\cdot r$ 의 式이 成立된다. 따라서 $\triangle Q/Q=\triangle L/L$이 成立될 경우 勞動의 生産性에 變化가 없다면 勞動의 完全雇傭을 維持하려면 勞動供給量의 增加率과 國民所得의 增加率이 同一하게 維持되어야 한다. 따라서 勞動側面에서 現實國民所得水準을 Y 就業率을 μ이라고 하면. $Y=L.\mu.r$ 의 式이 成立되고 就業率이 1에 가까와짐에 따라 現實國民所得水準 Y는 實價國民所得水準 Q에 接近하여 失業없이 國民所得水準이 增大될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人口變動은 經濟成長에 對하여 큰 變化를 주는 自生的要因인 것이다.

그러나 低開發國의 一般的인 現象으로서는 人口成長이 經濟成長을 阻害하고 있다. , 卽 人口成長率이 資本成長率 或은 技術進步率보다 크고 또한 人口의 産業構成이 經濟成長에 크게 作用한다. Colin Clark 는 第1次産業, 第2次産業, 第3次産業間에 勞動人口가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 가에 따라 經濟成長에 重大한 影響을 준다고 했다.(1) 註低開發國에서 人口와 勞動問題가 主要한 問題로 登場하는 理由는 그것이 構造的過少雇傭 卽 低生産性雇傭의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低開發國의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雇傭의 質的變移過程을 摸索해야 한다. 또한 低開發國의 失業問題는 有効需要의 不足에서오는 keynes 型의 失業보다는 資本設備의 不足에서오는 Marx 型의 失業이(2)보다 問題가 될 뿐아니라 農村의 潛在失業이 經濟成長에 障碍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成長을 促進키 위해서 資本 設備를 增大하여 Marx 型 失業을 解消시키는 同時에 農村의 潛在勞動力을 農業部門에서 工業部門으로 移動시켜야 한다.

過剩人口 解消의 根本的인 方法이면서 經濟成長의 基本的機會가 되는것은 어디까지나 雇傭의 높은 機會를 通해서이고 이것이 곧 人口成長이 經濟成長을 수반하는 動態的 條件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總人口數를 N 1人當所得水準을 α 國民所得(生産量)을 Y 基準年度의 이것들을 各各 N_o, Y_o, α_o로 表示하고 또한 所得 Y의 成長率을 G 人口 N의 成長率을 g_n 1人當所得水準 α의 成長率을 g_α라 한다면 總得水準 $Y=\alpha.N$ 일것이고 Y를 成長率로 따져 본다면 g 만큼의 成長率로 發展한 셈이므로 $Y=Y_o(1+g)$가 된다.

目標年度의 1人當所得水準 $\alpha=\alpha_o(1+g_n)$, 總人口水準 $N=N_o(1+g_n)$가 成立한다. 따라서 $Y_o(1+g)=\alpha_o(1+g_\alpha)\cdot No(1+g_n)$가 된다. 여기서 初期値을 1로 본다면 $1+g=(1+g_\alpha)\cdot(1+g_n)$ 즉 $1+g=1+g_\alpha+g_n+g_\alpha g_n$ 가 된다. 그런데 $g_\alpha g_n$는 個別的으로보면 크지만 실제로 보면 零에 가까우므로 $G\fallingdotseq g_\alpha+g_n$이다. 그러나 이러한 假定은 어데까지나 完全雇傭을 前提로한 理論이다. 現實的으로 暴發的인 人口成長을 나타내고있는 低開發國의 人口投資는 모든 稼用資本이 現在生活水準유지에 거의 蠶食되어버리고 經濟開發을 阻害하는 要因

(1) Colin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51. pp. 395~6
(2) J. Robinson: The Rate of interest and other Essays, 1953. p. 80

으로 作用한다. 韓國의 最近人口 統計는 1957年 度에 南韓의 總人口數가 21,948千名 이었는데 7年後인 1964年 度에는 27,958千名으로 增加되었다. 이것은 過去 7년間에 每年 2.8%의 成長率을 示顯하는 것이다.(3) 韓國의 資本係數를 보통 3內外로보고 人口增加率을 2.8%로 본다면 增加되는 人口의 扶養을 위하여 每年必要로 하는 投資 卽 貯蓄은 國民所得中에서 8.4% (2.8%×3)라는 扶養을 維持해야 한다.

上述한 바와같이 人口成長率이 높을 때 每1人當 實質所得增加를 위하여 必要한 投資資本은 더욱 增加해야 하고 反對로 人口增加率이 낮을 수록 所要資本이 적어지며 稼用資本이 一定할때 人口成長이 낮을수록 1人當所得이 增加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所得水準이 낮기 때문에 現實貯蓄이 낮고 또한 經濟成長을 위한 必要貯蓄率은 이와같이 높다는데에 低開發國의 苦惱이 있는 것이다. Hans w, Singer도 人口增加에 따른 貯蓄增加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 다음과 같이 R F. Harrod의 方程式을 修正하여 經濟成長을 위한 必要貯蓄率을 提示하고있다. 卽 1人當所得成長率을 D 純貯蓄率을 S 新投下資本 1人當生産性一(Harrod에 있어서 資本係數 C의 逆數)를 P 人口增加率을 r로 하여 $D=Sp-r$(4)로 表示하고있다. 이式에 依하여 r가 클때 D를 높히려면 결국 S를 높혀야만 된다. Singer의 式을 Harrod의 成長率公式 $Gc=S$에따라 表示해보면 $(r+D)\frac{1}{P}=S$로 되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結局 $G=g_a+g_n$나 $D=Sp-r$는 人口增加의 關係가 形式上 表面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Harrod의 成長率公式 $Gc=S$로부터 人口增加關係를 陽性化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같이 人口成長率을 表示하는 前式 $G=g_a+g_n$에 있어서의 g_n나 後式 $D=Sp-r$에 있어서의 r는 形成上 모두 人口增加率자체를 나타내고 있지만 人口의 雇傭과 非雇傭關係는 전혀 나타내고 있지않다. 만일 극단적인 例로서 人口는 增加하는데 國民所得은 不變인 경우를 想定해 본다면 必然的으로 前式에 있어서의 1人當所得率 g_a는 떨어져 經濟成長率 G는 上昇하지 못한다. 이 경우를 後式에 적용해 보아도 資本1單位當生産性 P가 떨어지게 됨으로 다른 事情이 一定할 때 1人當所得成長率 D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經濟成長에 對해서는 人口와 아울러 雇傭問題가 重要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같이 低開發國의 經濟成長率과 人口成長率의 關係에 있어서 人口成長率의 相對的增加率이 높기 때문에 貧困이 現象化하고 累積된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그렇다면 過剩人口 및 雇傭에 對해서 어떻게 對處해야 할것인가 이것은 急速한 工業化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景氣局面에 따르는 一時的인 勞動過剩 施設能力의 稼動率低

(3) 韓國銀行調査 部：調査 月報 1965.2月號 統計 pp46~47
(4) Haus W. Singer: The Machanism of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Model Approach. 1952. pp1~18

下에 따르는 失業이 아니라 結局은 資源의 未開發로 말미암은 過少雇傭이라는 構造的 失業의 問題인 것이다. 이와같이 問題의 定義를 確定시켜 본다면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한 政策的 命題가 어떤 것인가는 明白할 것이다.

低開發國 開發過程에 있어서 投資基準이 補完効果가 큰 基礎的産業과 社會間接資本 그리고 雇傭効果를 勘案하여 계획 수립을 해야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主導部門으로 選定된 초 산업은 그 時間모형으로 보아 資本의 懷姙기간이 길뿐더러 그 所要시설이 資本集約的고 높은 技術水準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施設投資의 增加自體는 勞動力 吸收度가 勞動力 배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認識되나 事實은 主導部門投資에 따른 外部經濟 (external Economy)에 對한 그 補完性 효과로 因하여 연쇄산업이 擴散的으로 파생되어 틀림없이 雇傭効果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現實投資率의 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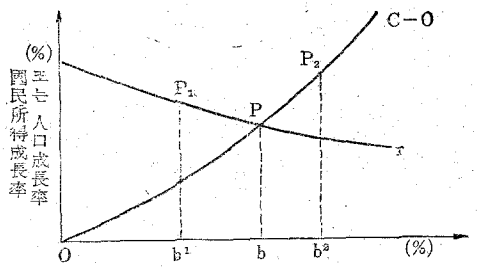
W.W. Rostow는 經濟成長의 段階를 區劃하는 決定因을 主로 投資率의 水準에 두었다. 卽人口와 勞動力의 成長率에 比해서 投資量과 生産性의 增加率을 相對的으로 높임으로서 1人當産出高를 지속적으로 增大시킬수 있다고했다.(5) 또한 여기에 經濟成長率은 投資율의 水準에 依하여 決定된다. 더구나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은 投資의 增加만이 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現實的으로 人口成長率을 勘案한 現實投資는 어떻게 決定되는가를 考察해 본다.

人口成長은 長期에 있어서는 더욱 重要하지만 短期에 있어서도 더욱 當期의 1人當所得成長率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要因이 된다. 當期의 人口成長水準는 當期의 出生率과 死亡率을 決定하는 要因에 依存한다. 따라서 當期의 出生率은 前期의 혼인率과 過去의 經濟的 條件에 依存할 것이다. 그러나 死亡率은 어느 程度 當期의 消費水準 즉 그이면에 있어서의 저축수준에 依存하기 때문에 當期의 經驗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6) 그러므로 出生率의 低下가 없는 限 低開發國의 人口增加는 先進國에서 볼 수 있는 人口變移 (demographic transition)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關係를 다음 圖表에서 r曲線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Fig I에 있어서 人口成長率은 投資率에 一部依存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7) 이것은 人口成長에 對한 投資効果를 검토해 볼때 投資率이 크면 클수록 所得中에서 貯蓄되는 部分이 커야하므로 消費의 절대 額은 적어진다. 그러나 投資率이 크면 클수록 보다 높은 消費의 절대적 水準을 期持할 수 있는 1人當所得의 增加는 보다 커질 것이다. 이것은 資本一産出高

(5)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60. chap 2~5.
(6) H. Leibenstein: chapter B, p 202.
(7) H. Leiben stein: cit. pp. 202~203.



의 關係에 依存한다. 調整된 限界資本一産出比率이 1보다 큰 동안에 投資單位의 增加의 結果로서 消費低下의 크기는 增加된 所得으로 부터의 消費의 增加보다 항상 클 것이다. 그러므로 投資의 어떠한 增加도 消費의 감소를 나타내고 投資의 增加가 없는 경우에 比하여 보다높은 死亡率을 나타낼 것이며 따라서 人口增加率의 低下를 意味한다. 그러나 높은 投資率에 對하여 높은 投資率이 사망율에 미치는 단기에 있어서 충격은 그렇게 重大하다고는 보지않으므로 圖表에 있어서의 曲線 r는 그의 負의 傾斜를 誇張하지 않도록 그린것이다. 거기에 關連되어 調整된 限界資本一産出高率도 圖表 I의 $C-O$로 나타낸 것이다. 이 曲線은 投資率의 低水準의 增加가 國民所得의 成長率의 低水準의 增加와 어떻게 關係되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曲線 $C-O$은 그 曲線上의 諸點에 關聯되는 投資率에 對應되도록 人口成長率에 調整된 曲線이다. 또한 曲線의 形象은 人口增加와 거기에 關聯되는 勞動力人口의 成長은 資本單位當 産出高의 上昇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表示한 것이다. 이 圖表에 있어서 두 曲線의 交叉點 P와 이 P點에 對應되는 b點은 所得成長率과 人口成長率을 均等되는데 必要한 最少의 投資率을 나타낸다. ob 以上의 投資率이 나타날 때는 人口成長率을 초과한 所得成長率이 可能할 것이며 1人當實質所得은 그 초과된 率만큼 增加될 것이다. 이와 反對로 ob 以下의 投資率이 나타날때는 所得의 成長率을 초과할 人口成長率이 나타날 것이며 Pb의 길이만큼의 (%) 1人當實質所得은 減少할 것이며, 따라서 現實 投資率은 所得成長率과 人口成長率의 균등점 pb 以上에서 決定되어야만이 人口成長率을 초과 한 所得成長率이 實現될 것이다.

3. 資本蓄積

一般的으로 資本축적이 增加되면 投資가 增加되는데 投資는 한편 乘數作用을 通하여 有效需要를 增大시키고 다른한편 生産力 使用을 通하여 生産物의 供給능력을 增大시킨다.

이제 生産力을 P資本量을 K 資本의 生産性(P/K)를 ∂라고하면 投資增加에 依한 生産力의 增大는 $P=\partial K$ 혹은 $\triangle P=\partial\triangle K$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triangle P/P=\triangle K/K$의 관계가 성립할 때 資本測面에서 資本의 生産性에 變所가 없고 資本의 完全利用을 實現하려면 生産

力의 增加率과 資本의 增加率이 同一하게 成長할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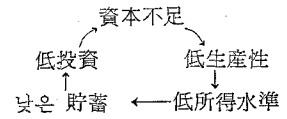
資本의 稼動率을 U라하면 現實國民所得은 $Y=k\cdot u\cdot \partial$로 나타나고 資本의 稼動率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 現實國民所得水準 Y는 實質國民所得水準 Q에 接近하여 遊休施設없이 國民所得水準이 增大될 수 있다. 投資가 貯蓄과 같고 貯蓄係數를 S라 하면 創出된 投資는 $I=SP$가 되므로 $\triangle P=\partial sp$. $\triangle P/P=\triangle K/K=\partial S$가 成立한다. 이 式은 生産能力을 完全히 利用하기 위해서 資本의 增加率이 必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低開發國의 開發過程에 있어서 必要資本을 어떻게 調達할 것인가하는 問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 內部的源泉

低開發國에 있어서 資本蓄積은 元來 과거 및 現在의 經濟活動의 結果이며 具體的으로는 投資의 所産인 것이다. 그러므로 單純히 現在의 時點에서 低開發國의 資本蓄積의 不足을 分析하는 것은 한 단면에 不過하다고 말할 수 있다.

資本積이 不足한 過去原因中에는 各國民經濟의 地理的歷史的 社會的 特異性에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一般的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經濟的領域(Economic Territory)의 협소 自然資源의 貧困 思考方式에 따른 經濟感覺의 鈍化 및 植民地的收奪의 歷史등을 度外視할 수 없을 것이다.

低開發國의 資本蓄積을 阻害하는 貧困의 惡循還은 資本供給—貯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資本需要—投資—의 側面에도 나타난다. R. Nurkse는 「資本供給은 貯蓄能力과 저축 의욕에 依하여 支配되며 資本需要는 投資誘因에 依하여 決定된다」(8)고 말했다. 그런데 資本供給面의 惡循環은 實質所得이 너무 낮기 때문에 資本蓄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實質所得이 낮은 것은 稼動할 수 있는 資本量이 不足하기 때문이며 資本量의 不足은 所得水準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資本供給面의 惡循環은 現在의 단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惡循環은 單純히 한가지 原因에 依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低開發國이 歷史的産物로서 內包하고있는 原因 이외에도 投資性向을 낮게하거나 혹은 非經濟的投資로 因한 貯蓄性向을 낮게하는 많은 要因이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投資不足은 위에서 表示한 바와같이 貯蓄不足에서만이 오는것은 아니다. 또한 貯蓄性向의 低位性도 實質所得水準의 低位性에만 오는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低開發國의 消費性向—貯蓄性向도 같다.—

(8) R. Nurkse: cit' pp 45~47

은 低開發國 自體의 절대 所得水準에 의해서만이 決定된다고 볼 수 없다. 經濟的 先進國의 高所得과 그에 對한 消費型의 영향을 받은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의 영향을 받아 消費性向은 높고 貯蓄性向은 낮아진다. 더구나 「인푸레슌」 傾向이 貯蓄性向을 적게하는 것도 낮은 貯蓄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인푸레」 狀態下에서는 화폐一通貨를 意味一價値저장의 機能을 充分히 할 수 없다.

또한 低開發國의 貯蓄을 낮게하는 要因으로서 人口增加 技術不足을 들지 않을 수 없다. 要컨데 資本供給面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서로 얽히여 貧困의 惡循環을 累積的으로 促進한다.

貧困의 惡循環은 資本의 需要側面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資本蓄積을 障碍하는 病因이 되고있다. 이 進行過程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投資誘因의 不足
↑ ↓
購買力不足 資本不足
↑ ↓
낮은所得水準 ←— 낮은生産性

위에서 表示한 惡循環은 購買力이 너무적기 때문에 投資를 誘因할 수 없다. 購買力은 生産物에 對한 有效需要力을 意味하며 곧 市場의 크기이다. 商品을 生産하는 市場經濟에 있어서 市場의 크기는 需要要因으로서 經濟成長에 密接하게 關係하고 있다. 生産物에 對한 需要能力 곧 購買力이 적은 理由는 根本的으로 所得水準의 低位性에 基因되며 그 根本理由는 蓄積된 資本이 적다는 것을 意味한다. 購買力不足은 低開發國의 所得水準이 낮을 뿐아니라 所得構造의 不均衡과 所得分布의 不均衡이 購買力을 惡化시키게 된다. 大部分의 低開發國家에 있어서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間의 所得隔差와 高所得層과 低所得層의 異次元的인 隔差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市場은 狹少할 수 밖에 없다. 人口의 큰 比重이 農業에 從事하고 있는 農業部分의 相對的 貧困化傾向은 國內市場을 狹少하게 만든다. 投資誘因은 內部的 또는 外部的要因에 의하여 주어진 것만은 아니고 投資機會를 開拓할 수도 있으나 低開發國에서는 이것을 擔當할 企業家層(Well-gualified enterpriser)이 存在하지 않는다는[9]데에 原因이있다. 요컨데 低開發國은 역사적으로 貧困의 惡循環이라는 資本蓄積의 障碍要因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惡循環이 支配하여 資本蓄積을 불가능 하게하고 過剩勞動力 형태의 실업을 발생시킨다. 이것을 指摘하여 H.W. singer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악순환은 한가지 體係가 아니고 악순환의 連鎖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0]

그렇다면 低開發國에 있어서 어떻게 資本蓄積을 企圖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9) H.W. Singer: "Obstacles to Economic Development," 1953, p. 20.
(10) HH.W. Singer: "Economic Progress in Underdereloped Areas" 1949. p.5.

A.O. Hirschman이나 또는 C.wolf는 자본형성은 경제성장의 基因이라기 보다는 그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見解도있으나[11] 註低開發國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은 資本蓄積이 아닐 수 없다.

Maurice Dobb은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動態的要因(three main dynamic tectors)는 분업(the division of Labour)와 자본축적(accumulation of capital)과 기술혁신(technical change)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2] 이 세가지 요인중에서도 자본축적 즉 生産의 手段이 되는 資本設備를 양적으로 capital-widening 質的으로 Capital-deepening을 형성시키는 문제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본적 요인이다. 저 개발국에 있어서 資本蓄積의 促進方法은 자본 供給面을 通한 資本의 供給面과 需要面의 양면에서 試圖할 수 있다. 자본 축적은 곧 생산력 요소를 강화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資本需要面을 통한 자본축적은 자본재 생산에 있어서 불안전성을 止揚하는것이 된다. 자본의 공급면을 통한 자본축적은 貯蓄의 造成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자본공급은 주로 貯蓄을 근거로 하여 實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國內 貯蓄뿐만 아니라 外資導入을 통해서 자본의 공급은 촉진되고 자본축적이 達成된다

그런데 공급면은 자발적인 貯蓄과 강제적인 貯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발적인 자본축적은

첫째, 생산력을 增進시킴으로서 소득수준의 上昇을 얻게되고 이것이 自發的貯蓄의 증대를 갖어옴으로써 자본 공급면의 축적을 擴大시킬 수 있다.

둘째, 고정된 소득수준하에서 貯蓄을 증대하고 투자의 증대를 圖謀하려면 貯蓄性向을 높혀야 하는데 일정한 소득수준밑에서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流通 질서의 안전화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우선 화폐價値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의 貯蓄이 유동성을 選擇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므로 市場機構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인 계획방안이 摸索되어야 한다.

또한 政府에의한 强制貯蓄은 「인푸레션」에 의한것과[13] 註租稅徵收에 의한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强制貯蓄이 자본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吸收된 民間所得이 결과적으로 사회적투자로 나타나야 한다.

---

(11) A.O. Hirsch man: op. cit. p.1

(12) Mavrice Dobb: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three lectures. 1945. p2.

(13) Inflation을 通한 强制貯蓄 : 不換紙幣를 發行하여 정부가 새로이 지출한 당시에는 아직 貨幣數量의 증가가 표면화 하지않는 社會內에서 從前의 貨幣價値를 충분히 發揮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支拂에 의해서 不換紙幣增發의 결과가 일단 流通界에 나타나면 다음 回轉부터는 貨幣價値의 下落이 있을 것이며 그럴때에 그 價値下落의 損失을 입게되는 것은 결국 政府支拂을 받아들일 民間이 아닐수 없다. 다시 말하면 民間所得은 새로 增發된 不換紙幣의 가치하락의 비율에 따라 90% 또는 80%等等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결과 인푸레숀을 통하여 정부는 강제적으로 民間所得을 10% 또는 20%等으로 吸收하는 셈이된다.

자본의 需要面을 통한 자본축적은 投資誘因의 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곧 投資需要가 증대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가지고 民間의 투자 활동을 保護育成하므로써 이루어 질수있는 자본축적이다. 투자수요가 증대함으로써 적본축적이 증대하는 方途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투자수요擴大에 의한것과 行政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축적의 擴大로 大別된다.

資本에 對한 수요가 民間企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①所得分配의 不均衡이 없어야 하고 勞賃所得水準의 向上을 모색해야 한다. 그 결과 投資機會가 확대되고 企業利潤을 追求할 수 있는 範圍가 넓어짐에 따라 資本에 대한 수요가 증대 될 것이다. ②동시에 民間貯蓄分의 퇴장화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유동질서가 정상화되고 통화가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③國民들의 意慾과 流行을 기업투자의 적극화로 高潮시키는 분위기가 陽性化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行政力을 통해서 자본수요의 증대를 圖謀할 수 있는 것은 大體로 다음 4가지로 區分해 볼 수 있다.

첫째, 企業의 社內留保資産再評價, 法人稅等의 부분에 대해서 租稅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투자수요를 刺戟시킬 수 있고 租稅정책과 농산물 가격政策等을 통해서 農村과 勞動所得의 相對的인 증대를 圖謀하여 民間의 유효수요를 높이고 나아가 投資誘因을 증대시키므로써 자본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貯蓄이 투자를 선택하려고할때 投機的인 浮動資金이 정상적이고 健全한 투자를 선택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이에 先行的要件으로는 流通질서의 안정화와 정부의 합리적인 開發戰略과 政策에 의한 개발계획에 信賴를주어 企業의 長期계획을 가능케 하도록해야 한다.

세째, 企業家의 投資意慾을 涵養시켜주면서 社會的 책임을 높혀줌으로서 資本에 促進시킬 수 있다.

넷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를 擴大强化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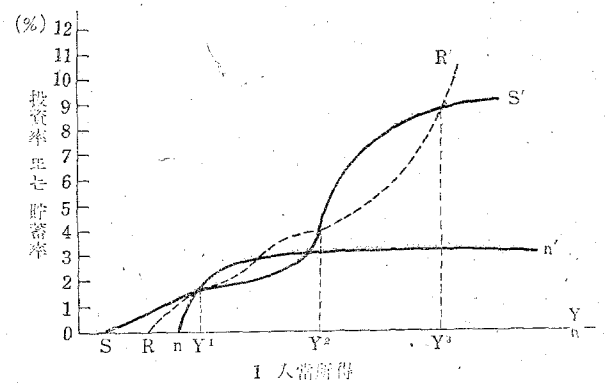
이와같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모든면에서 民間의 자본수요를 刺戟시켜 나갈때 이것이 곧 저개발국의 자본축적을 강화하여 貧困의 악순환을 打破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나. 外部的源泉

저개발국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長久한 기간을 痼疾的인 停滯와 累積的인 貧困의 악순환 과정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經濟體質의 構造的變化를 일으키어 개발의 起動力을 불러 이르킨다는 것은 그렇게 容易한일이 아니다. 여기에 또한 資本畜貯面에 있어서 貯蓄은 消費의 節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消費의 절약은 국내의 유효수요를 감축 시킨다는 결함이있다. 그런데 외자도입은 이와같은 결함이없이 이루어 질수있는 자본공급이며 자본축

적이라는데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또한 외자도입의 문제는 요구되는 투자율—자본수요—와 現實貯蓄率과의 관계에서 볼때 저개발국으로서는 必要不可缺한 要件인 것이다. 여기에 외자도입의 不可分性을 分析해본다면 B. Higins는 요구되는 투자율과 현실의 貯蓄率과의 관계로부터 經濟成長을 問題로 한다.

1人當所得에 對應되는 필요한 투자율과 저축율을 決定하고 이 兩者의 不均等으로 低開發國均衡에로 下落하는 경우와 自生的 成長經路를 걷게되는 경우를 區別하여 論究하고 있다.(14)



도표Ⅱ에서 橫軸에 1人當所得$\frac{Y}{N}$(Y는 國民所得 N는 人口)를 表示하고 縱軸에 필요투자율과 貯蓄을 나타낸다. 曲線 ss'는 1人當所得의 함수인 純貯蓄總額의 국민소득에 대한 百分比를 나타내고 曲線 nn'는 1인당소득의 함수로서 인구 성장율을 나타낸다. 소득이 생산수준이하이면 인구는 減少하고 生存水準을 넘어선 다음에는 H. Leibenstein이 약3%로 推定한 生物的極限에 이르기까지 急速히 증가하나 그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곡선RR'는 자본소요량 곡선이다. 이것은 對應되는 1인당소득수준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자본량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R를 필요투자율 K를 자본 Stock. Y를 국민소득 N를 人口로 표시하며 자본——産出量係數$\frac{K}{Y}$를—定하다고 假定하고 人口成長 ΔN가 所與되었을때 1인당소득Y/N를 일정한 수준에로 維持하기 위한 필요투자율R는 다음과 같은 式으로 나타낼 수 있다.

$$R=\frac{\frac{K}{N}\Delta N}{Y}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①$$

즉 一定한 1인당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1인당투자율은 자본량K를 人口로

(14) Benjamin Higgins: Economic Development, 1959. Chap 17.

나누고 인구증가 $\triangle N$를 乘한것은 소득Y에 對한 百分率로 표현하기 위해서 Y로 除한 것이다.

①式은 $R=\frac{K}{Y}\cdot\frac{\triangle N}{N}$로 變形할 수 있고 $\frac{\triangle N}{N}$를 n로 표시한다면 $R=\frac{K}{Y}\cdot n$……②

②式을Y/N로 微分한다면

$$\frac{d}{d(Y/N)}\cdot(\frac{k}{y}\cdot n)=\frac{k}{y}\cdot\frac{dn}{d(Y/N)}+n\cdot\frac{d}{d(Y/N)}\cdot(\frac{k}{y})\cdots\cdots③$$

여기에서

$\frac{d}{d(y/n)}\cdot(\frac{k}{y})$를 限界所要資本

$\frac{dn}{d(Y/N)}$)을 限界人口性向 이라고 한다.

限界所要資本量은 1인당 所要資本이 1인당所要의 上昇에 대하여 上昇하는 비율을 말하며 限界人口性向은 1인당 소득이 上昇함에따라 인구성장이 上昇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리하여 1인당소득을 維持하기에 필요한 투자율곡선RR'의 型狀과 기울기는 ③식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다. 즉 1인당소득을 維持하기에 필요한 소요 자본량=資本對産出量比率×限界人口性向×人口成長率×限界資本所要量에 依存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표Ⅱ에 있어서와같은 形象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그린진 RR'曲線은 1人當所得水準의 $y_1y_2y_3$의 點에서 ss'곡선과 交叉한다. 즉 y로부터 y_2까지의 사이에 소요자본의 貯蓄을 상회하고 있다. 1인당소득 Y_1의 수준은 古典學派的인 均衡點이며 그 자본축적율은 生存水準보다 약간 높은 1인당 소득을 유지하기에 꼭 알맞다. 이것은「低水準均衡陷穽」(Low-level equilibrium trap)이며 이 位置는 안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보다 높은 1인당 소득을 上昇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충분한 자본을 供給함으로서 Y_3의 高水準均衡點에로 成長이 確保될 것이다.

저개발국의 개발계획은 Y_2以下의 所得水準을 Y_2以上의 所得水準으로 성장시키는 길인데 저 개발국은 1인당소득 수준이 극히 낮기 때문에 貯蓄은 보잘것이 없다. 즉 Y_2以上의 소득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율 $(\frac{I}{Y})$에 對應할 貯蓄率$(\frac{S}{Y})$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저 개발은 투자의 資本需要가 국내 貯蓄을 超過하고 있다. 즉 $G=\frac{I}{Y}-\frac{S}{Y}$다. 그러므로 Y_2의 투자율에 該當되는 財源은 外國으로부터의 資本輸入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國內貯蓄이 소득이나 消費水準에 의하여 스스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外資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나라에 있어서 외자도입의 한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그것은 도입의 한계와 能力으로 결정 될 것이다.

지금여기에

F……외자소요액

Y……GNP

r……성장율

k……資本係數

S……저축량

I……투자량

b……限界貯蓄率

c……基礎貯蓄率 이라고 하면

저개발국이 개발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소요외자는 소요되는 總投資額에서 국내 貯蓄을 뺀 나머지일 것이다.

즉 $F=I-S$ ……①

$I=kry$ ……(2)

$S=by-(b-c)y_o$……(3) (y_o=초기GNP)

②와③式을 ①式에 代入하면

$F=)kr-b)y+t(b-c)\ y_o$……(4) (t=계획기간)

즉 ④式은 외자수요액을 算定한 數式이다. 이와같이 외자수요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資本係數成長率 貯蓄率 GNP 等이 어떤수준에 있는가에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어느나라의 平均貯蓄率(c)를 8%. 限界 貯蓄率(b)를 15% 資本係數(k)를 3. 계획초기 GNP (t_o)를 8,840억이라하고 계획기간 5년동안에 GNP成長率을 연간 7%라고 한다면 계획기간중에 필요한 외자소요액은

$F=(3\times7\%-15\%)$ 50,336억+5(15%−8%) 8,840억=6,144억이다. 그러나 이때 외환율을 270 : 1로 잡는다면 6144÷270=22.7억원 약23억「달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자도입도 중요하지만 그 외자가 借款이라고 할때 償還能力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해 (t_o)에 있어서

Y……GNP

S……貯蓄量

I……투자량 이라고 하고

그 다음해 (t_1)의

y의 증가분……ΔY

S의 증가분……ΔS라 표시하며

M……借款額 ($=I-S$)라 하자

그리고 t_0年은 借款이 없었고 t_1年에 借款이 들어 왔다고 가정하면

t_1年의 限界貯蓄額(ΔS)는 借款利子額과 借款이 없다고 보았을 때의 貯蓄增加分의 合計인 것이다.

즉 $\Delta S = Mi + \Delta y \frac{y}{S}$ ……(1) (i는 借款利子)

①式을 i에 관해서 풀면

$i = \frac{\Delta y}{y}\left(\frac{S}{y} - \frac{\Delta S}{\Delta y}\right)\frac{S}{y} - \frac{I}{\Delta y} \cdot \frac{\Delta y}{y}$ ……(2)로 변형된다.

이때

$\frac{S}{y}$ ……b

$\frac{\Delta S}{\Delta y}$ ……c

$\frac{I}{\Delta y}$ ……k

$\frac{\Delta y}{y}$ ……r라 하면

$i = \frac{r(b-c)}{b-kr}$ ……(3)

③式을 다시 변형하면

$k = \frac{b}{r} + \frac{c-b}{i}$ ……(4)

④式에서

b……平均貯蓄率

c……限界貯蓄率

r……成長率

k……資本係數라 한다.

따라서 (4)式은 借款에 對한 상환능력을 추정할 수가 있는 數式인 것이다.

위에서 k를3. b를8. c를15. 라할때 年利率 6%의 外資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GNP*의 成長率은 4.4%가 계산된다.

$3 = \frac{8}{r} + \frac{15-8}{6}$

r=4.4%다.

그런데 만일 계획기간중의 初期平均 저축율을 10%라 추정하고 계획기간의 5년간에 限界貯蓄率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5년간에 있어서 *GNP*는 년간 6% 以上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즉 平均蓄率을 10% 限界貯蓄率을 20% 資本係數를 3. 그리고 *GNP*의 成長率을 6%라한다면 그 나라에 있어서 經濟力에 맞는 借款利子率의 上限은 年9%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 技術進步

이와같은 方法으로 資本形成이 始動되면 활발한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서 각 산업간의 성장율이 다르므로 構造的變動이 일어날 것이다. 즉 需要의 貯蓄面이 나타날 것이고 供給의 生産力格差에서오는 生産의 構造的變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 진보는 開發速度를 더한층 加速的인 推進作用을 하게되는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要素이다. 여기에 技術進步는 그것을 이용할 기술과 이런 추구를 위한 能動的인 企業家와 자본축적이 先行條件이 된다. 만일 저개발국에 있어서 위의 3가지 조건 가운데 어느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새 技術의 도입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 한예로서 선진경제의 生産方式을 模倣하여 기술을 도입했을 때이다. 그것은 대체로 勞動節約的인 技術진보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도입된 기술은 總生産費 및 限界生産費를 적게하는 까닭에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한 그 企業家에 對하여 特別利潤을 提供할 것이다. 그러나 그 特別利潤을 擴張投資에 再投資하지 않는 까닭에 特定人의 利潤만 提高할 뿐 低開發國의 開發에 何等의 成長動因으로서 作用할 수 없게 된다.

J. Robin son은 利子率이 주어졌을때 利潤分配率을 증대시키는 技術進步를 資本使用的 利潤分配를 阻止하는 技術進步를 資本節約인 것이다고 했다.(15) 이제 資本利潤을 G.국민소득을 y. 資本存在量을 k라하면

$\frac{G}{y}=\frac{G}{k}\cdot\frac{k}{y}$의 式이 成立한다.

이 식에서 $\frac{G}{y}$는 利潤分配率 $\frac{G}{k}$는 資本利潤率 $\frac{k}{y}$는 資本係數다.

資本利潤率 $\frac{G}{k}$가 일정할때 資本係數 $\frac{k}{y}$가 변화하지 않으면 利潤分配率 $\frac{G}{y}$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을 中立的 技術進步라 하고, 資本係數 $\frac{k}{y}$가 증대하면 利潤分配率 $\frac{G}{y}$도 증대한다는 것을 資本使用的 技術進步이다. 反對로 資本係數 $\frac{k}{y}$가 減少하면 利潤分配率 $\frac{G}{y}$도 감소하는 것을 資本節約的技術進步라 한다. 기술의 진보는 經濟全體에 對하여 직접 간접으로 여러가지 효과를 招來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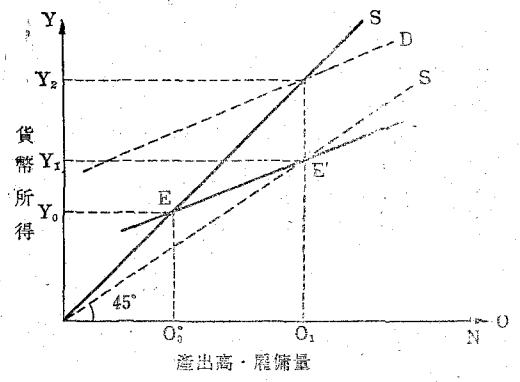
技術革新은 企業 규모의 擴大. 生産力增大. 原料의 代替等으로 제품의 生産費를 절감하고 신제품의 開發과 품질의 향상등으로 利潤의 機會를 증대하는 것이다. 어떤부문에 主導的技術革新이 이루어지면 그 波及效果에 의해서 他部門에 기술혁신과 기술향상의 機會를 擴大하거나 혹으 그 가능성을 크게할수 있다. 즉 이윤의 機會를 증대시키게 된다. 또한 기술은 사회적 분업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크며 한분업부분과 타분업 부분과의 상호 의존성을 크게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술혁신의 효과를 H. Leibenstein은 機會效果(Opportunity

(15) J. Robinson: Accumulation of capital. 1956. pp 99~100

effect) 反作用効果(Reaction effect) 그리고 相關効果(inter-dependence effect)라 했다.(16)

어떤 새技術이 全面經濟에 採用되거나 혹은 技術進步가 이루어지면 線體經濟에 있어서도 個人企業의 경우와 같이 生産費는 감소된다. 즉, 공급곡선이 낮아진다. 이것은 生産費와 所得—화폐 所得을 意味—의 균형원칙에 따라 一定한 화폐소득으로서 더욱많은 화폐와 서비스를 生産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실질소득의 上昇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국은 總需要曲線을 위로 높이고 雇傭을 증대시키며 實質所得을 를상시키고 자본의 공급량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 理論과정을 論究하면서 도표 Ⅲ로서 증명코자 한다.



도표(Ⅲ)에서 화폐소득을 Y軸으로 나타내고 産出高를 X軸으로 표시한다. 45度線 S는 一定한 物價水準을 前提하고 화폐所得과 産出高가 均衡하는 水準을 表示하는 所得 一産出高線(income-output Curve)을 의미한다. 문제를 單純化 하기 위하여 技術進步가 經濟全體에 나타난다고 假定한다. 總供給曲線 S는 갑자기 S′와 같이 낮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費用—화폐所得—으로서 더욱 많은 생산고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總需要曲線은 이 급격한 技術進步의 영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技術進步以 前과 같이 D선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從來의 균형 點E는 技術進步로 인하여 새균형 點E'로 移動하게 된다. 새균형 點E'는 技術進步가 이루어지기 前의 物價水準에서보면 균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균여點E'의 産出高O'에 그전의 物價水準을 乘하면 화폐 所得Y_1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균형 點은 物價水準을 低下시키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와같이 技術進步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物價 및 物價水準을 低落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實質所

(16) H. leibenstein: cit. pp. 138~9

得을 크게하여 물가의 低落과 같은 程度로 總需要가 증가한 것과같은 효과인 것이다. 즉 技術進步에따라 물가수준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總需要線이 그前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한다면 그전의 物價水準에서 볼때 購買力이 擴大하여 D에서 D'로 총 需要가 증대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産出高O_0에서 O_1으로 증가하고 顧傭量도 N_0에서 N_1으로 증가하여 N_0—N_1만큼 또는 O_0—O_1만큼 技術進步는 資本蓄積을 創出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결론은 技術進步는 總需要에 영향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얻어진 것이나 技術進步가 總需要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는 總産出量 및 資本蓄積도 N_1 以上으로 증가 할 것이다.

그런데 低開國은 자본이 부족하고 過剩勞動狀態에 있으므로 ①資本係數가 감소하는 資本節約的인 것과 勞動係數가 증대하는 勞動使用的인 것과 勞動係數가 증대하는 勞動使用的인 것. 즉 資本절약=勞動使用的技術進步(Capital Saving=Labour Using technical progress) ②資本係數가 감소하는 資本절약的인것과 勞動계수가 變化하지않는 勞動中立的인것 卽 資本절약=勞動中立的인 技術進步(Capital saving=Labour Neutral technical progress) ③資本 係數가 변화하지않는 資本中立的인것과 勞動係數가 증대하는 노동사용적인것 즉 資本中立勞動使用的技術進步(Capital Neutral=Labour Using technical progress) 등의 3개 技術進步中 어느것을 선택해도 經濟成長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投資의 配分政策

低開發國의 開發記劃의 중점은 極大成長을 이룰수 있도록 投資를 각산업부문간에 혹은 사업계획간에 적절히 配分하는 것이다. 經濟的 從進性을 脫皮하고 경제성장을 단시일내에 이룩하려는 의욕에 비추어서 可用生産資源의 한정은 필연적으로 投資計劃에 있어서 投資의 配分問題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단시일내의 최대의 開發效果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이 生産資源—資本—의 부족이란 低開發國의 屬性에서오는 資源最大利用의 문제를 생각할때 投資配分이란 주어진 一連의 投資計劃에 소요되는 자원이 한정된 可用資源을 超過할때 어떤계획 우선순위를 認定해야 할것인가 하는데 순위선택을 決定하는 것이다.

1. 投資優先順位의 策定

投資順位란 주어진 本件下에서 한정된 資本을 어느부분에 우선적으로 配分해야 開發效果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投資順位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과 계발단계에따라 相異할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有效수효의 증대에 주력하여 資本設備의 完全稼動을 통한 勞動의 完全顧傭을 達成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低開發國은 不足된資本을 어느부분에 우선적으로 또는 集中的으로 投資하여 開發效果를 極大化 또는 급속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投資基準에 관한 H.B. Chenery와 W. Galenson-H. Leiben Stein 간의 論爭은 결국 보다높은 成長率과 總生産의 極大化中 어느것을 擇하는것이 옳을 것인가하는 論爭이라고 할 수 있다.

社會的限界生産性(Social marginal productivity)을 極大化 할려는 「chenery」의 이론은 低開發國의 構造的不均衡으로 인하여 생산가격은 그 機會費用이나 희소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장가격에 의한 投資의 配分이 총生産을 擴大化하지 못한다고 前提하여 投資는 生産要素의 狹少性을 반영한 계산 가격에 의하여 각산업간에 配分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低開發國에서 資本을 그 少性에 비하여 값이싸고 勞動市場은 現存貨金市場에서 超過供給狀態에 있으므로 시장가격에의한 投資의 配分을 利用可能한 生産要素를 全部雇傭할 수 없고 社會的生産은 擴大化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勞動 集約인 산업에 對한 投資를 우선함으로써 당면한 雇傭問題를 解消하며 資本을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당면의 貧困을 打開하는데 큰도움을 주자는 것이다.(17)

이에 대하여 Golenson-Leibenstein은 SMP에 의한 기준설에 一大攻迫을 전개했는데(18)이는주로 社會 厚生函數自體에서오는 異見이다고 볼 수 있다. 즉 임금은 대부분 消費되어 이윤은 전부가 저축된다는 가정아래 급속한 자본축적을 뒷받침하는 저축율의 極大化를 위하여 이윤을 상대적으로 크게하는 投資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資本集約的 산업에대한 投資가 장래의 높은 생산과 소득수준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Liben stein에 의하면 一時的生産의 極大化는 總所得中 이윤의 비율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저축율과 投資率을 낮추어 결국 長期的成長의 목적에 背馳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Leiben stein이 假定하듯이 追加이윤은 반듯이 저축된다고 보증할 수가 없다. 成長이 이윤의 相對的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과 再投資되는 資本限界生産力 및 이에서 얻게되는 再投資率等은 一般化될 수 없다. 또한 將來의 生産을 極大化하는것이 현재의 生産을 極大化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一般的으로 容納되지 않는다. 한社會가 긴 將來를 豫見하여 이에 對處하는것이 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事實이지만 그 時限의 長短은 현재의 生産에대한 緊迫度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現在의 生活水準이 견딜 수 없을 程度로 낮다면 現在의 慾求不足에 보다 優先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現實의 生活水準에 대한 指標는 무엇보다도 失業의 程度에 달려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雇傭의 增

(17) Hollis B. chenery: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Criteri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Feb, 1953, pp. 76~96.

(18) W. Galenson & H. Leibenstein: "Investment Criteria,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ug. 1955, pp. 343~370

大와 勞動者의 消費財供給을 위하여 投資는 適切히 制限될 필요가 생겨난다.

特히 低開發國의 開發過程에 있어서 度外視된 經濟構造의 二重性을 打破하기 위해서는 投資의 重點的配慮와 아울러 地域的인 配分을 適切히 하지않을 수가 없고 工業立地問題를 소홀히 할수없다. 經濟計劃을 經濟成長에 關聯해서볼때 그 計量은 産業間, 地域間, 또는 民間部門과 共公部門間에 産出高와 資本 그리고 勞動分配, 보다더 細分하여 各部門間에 數個의 社會經濟的인 集團間의 諸資源의 分配에 關한것이라고 볼때 諸産業間, 諸地域間의 偏益된 所得格差를 주리고 生産力效果가 雇傭效果를 向上시켜 社會福祉的急速한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Chenery의 Model이 보다더 중요한 義意를 갖는다.

H.B. Chenery는 A.E. kahn의 最初의 社會限界說에 의한[19] 註基準說에 修正을 加했는데 SMP는 한投資計劃事業에서 (project) 얻게되는 國民總生産의 純增加分의 크기에다 基準을두고 計劃配定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限界"란 全體的인 한나라의 經濟에 미치는 조그마한 計劃(project)를 意味하며 이로 因하여 얻게되는 國民生産의 純增은 直接및 間接的인 效果를 合算한 것을 意味한다.

Chenery의 SMP 公式은 다음과같이 表示된다.[20]

$$SMP=\frac{y+E-Mi}{K}-\frac{L+Md+O}{K}+\frac{\alpha}{K}(aB_1+B_2)$$ 다.

여기서

K=計劃投資額

X=市場價格으로 評價한 年間生産額

E=海外經濟效果 推定額

Mi=輸入原料費

L=勞賃

Md=國産原料費

O=資本消耗充當金 및 海外非經濟推定値를 包含한基他 一般經費

α=外換調整率

a=年賦償還率및 年利子率 (外換에 對한)

---

(19) Albred kahn: "Investment Criteria in Development prog-ress" Feb, 1951. pp. 36~61

(20) Chenery는 그의 SMP 公式의 導出을 다음 一聯式에 根據하고 있다. $U=U(Y.B.D\cdots\cdots)$
즉 그는 한 計劃事業의 社會的으로 미치는 利得指數U는 國民所得에 미치는 效果Y國際收支面에 미치는 效果B, 國民所得分配面에 미치는 效果D, 等 그밖의 變數와의 函數關係에 있다고 보았으며 더욱 單位事業投資에서오는 增加利得 指數$\triangle U$는
$\triangle U=\frac{\partial U}{\partial Y}\triangle Y+\frac{\partial U}{\partial B}\triangle B+\frac{\partial U}{\partial D}\triangle D\cdots\cdots$로 表示되며 所得分配效果를 無視하고 $\frac{\partial U}{\partial Y}=1$로 代置하면 $\triangle U=\triangle Y+\frac{\partial Y}{\partial B}\triangle B$로 變形된다. 따라서 SMP 公式의 r는 $\frac{\triangle Y}{\partial B}$를 말하며 이는 特定外換 및 特定外換事情下에서오는 外換上 效果를 勘案한 後의 원貨의 過大評價分을 測定한다.

B_1=現案의 投資計劃의 投資行爲에서 緣由되는 國際收支效果.

B^2=計劃事業의 完工後 運營上의 直接및 間接的인 國際收支效果.

그런데 여기에서 B_1과 B_2에 對한 內譯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投資效果

$$B_1=-mik-mz(1-mi)k$$

여기서

mi=投資總額中 施設導入을 위한 外資所要比率

m=限界收入性向

z=國民所得乘數値, $\frac{1}{1-c'}=\frac{1}{m+s}$ (c'=限界消費性向 S=限界貯蓄性向)

② 直接的인 運營效果

$$B'_2=e(1-\bar{m}\rho)X-(\bar{m}X+g)\ (\bar{m}'\rho-\bar{m}\rho)X$$

여기서

e=生産額中 輸出增加나 輸入減少로 外換稼得 및 絶約할 比率.

g=生産額中 旣存消費財를 代替할 比率.

c=生産額中 新規消費增加로 쓰여질 比率.

따라서 $(e+g+c)=1$이 成立된다.

$\bar{m}\rho$=生産者의 原料輸入對 生産高比率.

$\bar{m}'\rho$=代替된 旣存消費財貨의 $\bar{m}p$

③ 間接的인 運營效果.

$$B''_2=-mzf\ (1-\bar{m}\rho)\times m^zB'z$$

여기서

f=生産額中 通貨膨脹方法에 의하여 財政支援되는 比率.

따라서 Chenery의 SMP 基準公式은 資本單位當 社會利得에 外換效果를 加算한 것이며 外換效果의 正, 中立, 負型의 分類方式을 總網羅한 效果를 말한다.[21]

SMP는

① 特定地下資源의 惠擇 特定技術 勞動力의 可用性 氣候關係等을 網羅한 生産力增加를 意味한다.

---

(21) Polak은 外換效果의 正. 中立. 負(positive. neutral 및 Negative) 型으로 나누어 第一. 第二. 第三 型이라고 各各命名하고 第1型의 稼得額이 Nagative effect의 第三型을 超過하느냐 못하느냐에 投資基準을 둘수도 있다했다.

J. J. polak: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of countries, Reconstructing with the help of Foreign Loans."

Feb, 1943. pp. 208~240.

② 國民生産과 投資事業間의 增加를 具體的으로 計量化하는 것이며 여기에 純增分이란 限界單位事業의 總生産 (直接및 間接包含) 値에서 이에 所要總原價(直接 및 間接) 値를 控除한 純額을 意味하며 國民生産에 對한 貢獻度 (純增分)란 즉 이 差額을 말한다.

여기에 Chenery의 SMD 公式中 外換効果의 測定項目($B=\alpha B_1+B'_2+B_2''$) 中에서 첫째항 投資効果(B_1) 및 세째항 間接的인 操作効果(B''_2)만을 除外하고서 쓰기도한다. 왜냐하면 첫째의 投資効果에 對해서는 앞으로 新企業을 일으키고 혹은 旣存施設擴張에 豫想되는 所要外資에 對한 業種別推計는 도저히 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이며 다음 間接的인 操作効果에 對해서도 앞으로 通貨膨脹에 依한 財政支援의 比率을 業種別로 알아본다 함은 無謀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整理된 SMP基準에의한 公式으로서는 다음과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SMP=\frac{X+E}{K}-\frac{Mi+Md+L+O}{K}+\frac{\alpha}{K}(e+\overline{gm'}\rho-\overline{m\rho})X$$

勿論 實際新規投資 對象計劃을 다루게 된다면 이 公式을 變形시켜 볼 수도 있다.

즉,

$$SMP=\frac{X+E}{K}-\frac{mx\,md+L+O}{K}+\frac{\alpha}{K}[\alpha mik-\beta mz(1-mi)k+(e+\overline{gm'}\rho-\overline{m\rho})X]$$

여기에서 새로운 變數α,및β는

$\alpha=\frac{1}{n}[1+\frac{\beta(n+1)}{2}]$, "$n$"는 据置 혹은 償還年數를 말하며 β는 年利率外資를 말한다.

2. 農業開發의 必要性

低開發國의 開發過程은 低所得으로부터 高所得에도 옮아가는 過程이며 그 雇傭構造 및 産業構造의 投影은 工業化로 特徵지워진다. 그런데 農業人口의 構成比率이 크고 農村의 過剩僞裝失業群이 存在하고 있는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投資의 配分에는 併行的으로 몇 가지의 補完的投資가 必要하다.

農業에對한 投資는 工業勞動者와 그所得의 增加에 對處하여 必要한 食糧需給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必要不可缺한 것이며 總體的으로 經濟成長의 要素가 되는 1人當産出高의 增加는 能動的으로 消費와 貯蓄面에서의 變化를 가져오고 이들은 또한 産業의 變化와 經濟構造의 變化를 招來하게 된다. 또한 1人當産出高의 增大는 新規産業의 開發및 새로운 生産方式을 改良하는 原動力이 된다.

特히 低開發國 開發過程에 있어서의 資本의 供給面에서 資本蓄積이라고 하면 반드시 所得에서 消費를 際하고난 나머지가 ($s=y-c$) 貯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 Maurice Dobb은 우선 總所得(Y)은 어느나라에서나 고정되어 있는것은 아니라보고 「總所得이 고정적이라고 看做할수 있는 것은 모든 利用可能資本이 限界點에까지 使用되어 生産

能力에 餘力이 없을때 局限된 現象」[22]이라고 排判한다.

이것은 低開發國의 大部分이 農村에 過剩勞動力이 現存하고 있다고할 때 利用可能資源이 限界點까지 使用되고 있지않다는 것을 意味한다.

즉 農業을 開發시킴으로서 總所得은 더욱 伸張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農村에 있어서의 人口增加와 潛在失業의 增加는 自己投入的인 生産過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工業化를 成就하려면 農村所得의 增大에 따른 工業製品의 需要增加에따라 工業成長을 이룩하는 高度成長과 均衡發展을 竝行시키지 않고서는 經濟成長은 緩慢하게 나타날 것이며 또한 二重構造를 深化시키고 이러한 現象은 經濟規模의 擴大와는 關係없이 經濟發展에 逆行效果를 갖어오게 된다.

이와같은 低開發國의 經濟成長을 지속적으로 갖어오기 위해서는 農業開發없이는 開發速度는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農業部門으로부터 非農業部門으로 勞動力을 移動시키는데 每年 總勞動人口의 1%씩 移動케 된다면 工業生産量은 每年10%以上 增加할 것이라고 指摘한 計劃도 있다.[23]

이제 投資의 配分에있어서 農業에 相對的比重이 왜 必要한가는 明白하다. 低開發國의 經濟成長에 對한 農業의 寄與는 總生産高의 寄與(product contribution)로 나타나고 1人當所得水準向上의 寄與로 나타나게 된다.[24]

즉, p……總産出高($=P_a+P_b$)

P_a……農業部門의 産出高

P_b……非農業部門의 産出高

δp……總産出高의 增加分

r_a……P_a의 增加率 따라서 $P'_a=P_a°(1+ra)$ 數字는 期間을 表示

r_b……P_b의 增加率 따라서 $P_b'=P_b°(1+r_b)$

$$\delta_p=p_a r_a+p_b r_b \cdots\cdots ①$$

또한 總産出高의 增加에 對한 農業部門産出高 增加의 몫은 다음과 같다.

$$\frac{\delta p_a r_a}{\delta p}=\frac{1}{1+(\frac{pb}{pa}\times\frac{rb}{ra})} \cdots\cdots (2)$$

②式으로부터 몇가지 結論이 導出된다.

---

(22) Maurice Dobb: some Aspects of Economic Dovelopment three lecture, 2nd ed. 1955. pp. 35~37.

(2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ffirs; Measures for the Economic Developm 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1951.

(24) Simon Kuznets; Economic Growth and the contribution of Agriculture Notes on Measurements——.

(1) 如他條件이 동일하고 非農業部門의 增加率이 農業部門의 增加率보다 높으면 産出高에 對한 農業의 寄與率은 低下할 것이다.

(2) 農業의 寄與率의 低下를 막을 수 있는 因子는 rb/ra이다. $\frac{r_b}{r_a}$에서의 低下는pb/pa에서의 增加效果를 中和시킬 것이다.

(3) rb/ra가 增加한다면 즉 非農業部門의 增加率이 農業部門의 增加率보다 繼續的으로 높아진다면 總産出高增加에 있어서 農業의 寄與度下落은 더욱크게 나타날 것이다.

(4) 總産出高增加率이 期間中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또 rb/ra가 1以上 즉 非農業部門의 成長率이 農業部門의 成長率보다 높다면 r_a나 r_b中에 어느하나 혹은둘다 以下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萬若에 이들 모두가 일정하다면 P_b의 增加値가 總産出高의 增加率을 加速的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1인당 産出高의 增大 혹은 이보다도 就業者 1人當産出高의 增大라는 점으로 焦點을 둘러보자.

지금까지의 記號에 追加하여

La……農業部門의 就業者數

Lb……非農業部門의 就業者數

L ……總就業者數$(=La+Lb)$

R ……就業者 1人當 産出高의 增加値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 일때)

就業者 1人當産出高에 있어서의 變化는 다음式으로 表示할 수 있다.

$$\frac{P^1}{L'}-\frac{P_\circ}{L^\circ}=\left(\frac{P'a}{La}-\frac{Pa^\circ}{La^\circ}\right)\left(\frac{L'a}{L'}\right)+\left(\frac{P'b}{L'b}-\frac{Pb^\circ}{L^\circ b}\right)\left(\frac{L'b}{L^1}\right)+\left(\frac{Pb^\circ}{L^\circ b}-\frac{Pa^\circ}{L^\circ a}\right)\left(\frac{L'b}{L'}-\frac{L^\circ b}{L^\circ}\right)\cdots\cdots\cdots(4)$$

(4) 式은 就業者 1人當總産出高의 增加

즉,

(a) 期末勞動者中 農業部門의 比重値를 加算한 農業部門就業者 1人當産出高增加

(b) 期末 非農業部門 勞動力을 加重한 非農業部門 就業者 1人當産出高의 增加

(c) 期初에 農業과 非農業部門 就業者 1人當産出高의 差異를 加重한 非農業部門 勞動力의 期間中變動等을 나타낸다.

Pb/Lb가 Pa/La 보다크고 (通常 그렇다) 基準時點에 있어서의 그 比率이 2 : 1로 假定, 또 農業과 非農業部門間의 就業者 1人當産出高가 거의 同率로 增加한다고 가정하면 (4)식을 다음과 같이 單純化 할수있을 것이다.

$$\frac{P_1}{L'}-\frac{P^\circ}{L^\circ}=\frac{Pa^\circ}{L^\circ a}\left[(L'a/L')\ R+(L'b/L')\ 2R+(L'bL'-L^\circ b/L^\circ)\right]-(5)$$

(5)式에서

(1) 項은 全産業의 勞動者 1人當 産出高增加에 對한 農業勞動者의 成長寄與를 測定할 것이며,

(2) 項은 非農業部門勞動者의 寄與를 測定

(3) 項은 農業에서 非農業部門으로 移動될 勞動力의 百分分布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農業勞動力이 침체되지않고 同率로 成長하면서 非農業部門에 追加勞動力을 提供했다는 事實은 개발과정에 있어서 농업부문이 經濟成長面에 커다란 寄與를하는 起動力이 되는 것이다.

저개발국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경제내부의 勞動力移動은 반듯이 大規模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經濟成長이 계속됨에따라 技術과 대규모 經濟에 影響을 받은 工産品의 보다큰 이익을 갖어오는反面, 資本의 懷姙期間이 比較的긴 농산물은 成長에 기여도가 緩慢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國民의 대부분이 농업에 依存하고있고 自然資源이 부족한 저개발국에서는 一次産業의 개발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低開發國의 資本의 源泉이 되여있는 농업부문을 개발시켜가면서 課稅에 의한 농업노동자의 限界生産性을 零으로하여 이 吸收된 資本을 사회간접자본에 投資한다는 것은 高度成長과 均衡發展을 위한 농업개발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低開發國에 있어서 이와같이 농업생산의 增大를 土臺로한 공업화를 推進해야하고, 경제성장은 농업성장을 阻害하지않고 공업화를 위한 資本形成을 농업부문에서 어떻게 抽出해 내느냐하는 문제는 바로 低開發國의 중요한 政策課題라고 생각한다.

Ⅳ. 結　　論

上述한 開發計劃의 문제점을 分析한 바와같이 開發局面을 打破하기위한 접근법을 고찰했다.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經濟計劃은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의 確立을 더욱 促進시키는데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第一次産業에서 第二次産業으로 移行하고 다시 第二次産業에서 第三次産業으로 移行하는 構造的 變動過程이며 저개발국은 외부경제의여건 즉 地下旣存資源이 부족하고 인구의 과잉상태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二次産業의 擴大와 成長은 산업구조의 近代化計劃을 위한 가장중요한 경제정책이 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質的高度化를 이룩하도록하여야 할것이며 여기에서 산업구조의 질적고도화는 성장위주의 量的擴大만의 정책이 아니

고 量의 擴大와 동시에 質的高度化를 이룩해야 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安定的 構造의 확립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과정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은 投資의 配分者로써, 또는 開發의 革新者로서 국민경제 전반에 至大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을 極大化 할수있는 環境造成에 力點을 두어야하고 社會間接資本의 擴大에 總力을 集中해 가면서 민간企業의 誘導및 경제의 基礎構築을 확립해야만이 持續的成長과 均衡있는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成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社會間接資本은 相互聯關性이 밀접함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投資는 경제구조의 社會的 不均衡을 是正할 수있는 總合的見地에서 投資對象을 選定되어야 할것이다.

산업의 발전과 持續的인 成長 또는 産業構造의 改善을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는 技術向上과 이에따른 生産性의 向上이다. 그리하여 기술혁신의 主體는 人間能力의 水準에 依存되는 것이므로 長期的人力開發에 정부는 直接投資의 主體가 되어야 할것이다.

低開發國에 있어서 資本의 蓄積이 극히 부족한 이유는 경제 長期的安定基盤이 확립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저축수준이 낮아 투자의 확보가 극히 困難하다. 불안정한 경제구조하에서는 그나마 微弱한자원이 投技的인 투자에 集中하게되는 것이다. 여기에 資本蓄積의 先行的 要件으로서 경제구조의 안정화에 力點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과정에 있여서 資源調達에 의한 방법으로서 外資導入이 불가피하다.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그量보다도 質的인 面에 외자선정의 基準을 두어야한다. 量的인 面만을 追求한다면 國內旣存産業 특히 中小企業에 壓力을 加할 우려가 있고 國內産業 秩序에 混亂을 惹起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連關效果에 最大의 漏出效果등을 고려하여 국민경제의 效率性을 높일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투자배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것은 투자의 규모와 투자대상의 立地를 고려해야 한다. 투자규모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前提한 適正規模化해야하고 産業立地는 關聯效果를 極大化하도록 選定되어야 할것이다. 立地條件을 無視한 신규산업은 국내산업에 波及效果를 미치지 못한다. 즉 立地經濟— 一種의 空間經濟問題—는 제품과 원료수송 그리고 노동력의 활용및, 시장과의 관계, 공업용수, 동력비에도 미치는 波及效果가 至大한 것이다.

경제개발과정에 있어서 投資優先順位는 경제외적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經濟變數中에서 外生變數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따라서 투자배분의 계획은 巨視的 見地에서 투자대상의 선정과 이에따른 微視的인 투자배분 기준을 선정해야 할것이며 산업부문별로 一義的인 基準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저개발국에 있어서 개발의 戰略的 要因은 先導的基幹産業部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하고 이의 擴充으로써 경제구조의 질적고 도화를 試圖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저개발국에 있어서

投資의 配分은 몇가지의 補完的投資를 필요로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공업노동자와 그 소득의 증가에 對處하여 필요한 식량수요를 充足하기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농업인구의 相對的減少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초기에 일어나는 커다란 식량수요를 충당하려면 무엇보다도 農業開發이 促進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장기적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장기 개발계획을 樹立하여 資的인 고도화를 前提로하는 基幹産業과 重化學工業을 發展시켜 가면서 短期的으로는 過剩勞動力의 吸收와 經濟的 二重構造를 打破하기 위해서 一次産業部門에 開發의 竝行的 比重을 두어야 할것이다.

요컨데 저개발국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主導的 役割의 擔當者는 정부인데 政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기계획수립은 물론 外部經濟의 創造, 資本調達, 技術革新, 개발의 根本的 基礎가 되는 사회개혁, 산업개발의 優先順位策定에 合理的인 配慮가 要請된다.

◇ ◇ ◇

SUMMARY

THE FUNDAMENTAL STRATEGY FOR THE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ON UNDERDEVELOPED COUNTRIES.

It is difficult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to gernerate motive po-wer of growth through the structural change of their economic constitu-tion at the stage of their devel opment, as they have been buried for ages the structural stagnation and accumulative vice circulation. And the poorer,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on the average are develop-ing more slowly, form, however, much the larger part of the world; again on the average, the population growth has been increased explosive ra-pid.

The population reproduction rate is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economic plann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f fertility does not decrease simultaneously, the rate of natural population increase will be to rise. A rapid increase of the populat_ ion, by requiring increased investment merely in order to maintain the standard of living at present levels, will tend to hamper and slow down economic development. This implies that a given rate of development will require greater sacrifices.

The pla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should, therefore, include population policy, aimed at controlling fertility. A successsful birth control campaign will be needed already to prevent the rate of natural population increase from rising.

The system into underdeveloped countries is by itself not moving towards any sort of balance between forces, but is constantly on the more away from such a situati_ on In the normal case a change does not call forth countervailing changes but, instead, supporting changes, which move the system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first change but much further. Because of such circular causation a social process tends to become cumulative and often to gather speed at an accerlerating rate.

The planning of the development is, therefore, required so as to show the national strategic theory the phaseshift on the point of de-velopment start and theoretical-policy for the stage shift. For this purpose investment ratio, accordingly, is required

to be bigger than the guaranteed "Big-push" and "Critical Minimum Effort" and it must be impregnated into their economic system. In general there are periods when opposing forces balances once anther so that the system remains in rest untill a "Big-push" is applied at one point or an-other. When the whole system starts moving after such a shock the changes in the forces work in the same direction. And this is a cha-nge in anyone induces the others to changes in such a way that these secondary changes support the first change, with similar tertiary effects upon the variable first affected, and so on.

To these accordingly, the investment on the part of the agricul-ture, simultaneously, have their significance in the plan of the eco-nomic not only as a preconditio n for raising productivity in agricul-ture. But as means of shattering the foundations of the old class st-ructure of a stagnating society. Then clearly the economy Would have to increase capital accumulation at a faster rate by its own efforts or else import the required capital unless the deeds of a growing populastion could be supposed to decline somehow. In order to realize such that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unavoidable foreign capital and loan from foreign countrie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at "the role of the state" in their countries. And the most important in state policics in their countries that they should each and all have a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deed, they should have an overall, integrated national plan, Be-cause the state must be responsible both for initiating the overall plan and seeing that it is carried out.

It should be cleaan that, if underdeveloped countries really succeed in starting, and sustaining by its policy interferences, and upward cumulativ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will provide more and not less space for what of private enterprise such a country possesses or is able to foster.

A main purpose of every national development plan should be to in-crease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aimed as raising the productivity powers of the country, and to define the means by which this can be done.

This plan should be recognize that nat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equality is conducive to rapid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as a whole. A main purpose of the state policies in the plan, therefore, must be to increa-

se the strength of the spread effects of the deve[opment impulses as between regions and between industries.

In the investment plan additional economic effects have to be accounted for. There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in a scheme of rationally motivated priorities, the level of investment,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and between industry and agriculture as a whole, and so on, and the means by which the required re-sults have to be achieved.

Indeed, a major purpose of the economic plan is to effect the stri-ctest economy with the available resources. Rational economic behaviour is always concerned with allocating scarce resources among alternative uses; this is the same the reality behind the notion of "opportunity cost" If underdeveloped countries demonstrate a shocking waste of soarce resources in "showpiece" public work and for investment and production along blind alleys, this is the ¡bring out a failure on the economic structural inprovement in underdeveloped country.